

유아의 언어능력 및 정서조절능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또래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reschool Children's Language Ability, Emotion Regulation,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on Peer Competence and Aggressive Behavior

최인숙(Insuk Choi)*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o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 preschool children's language ability and emotion regulation on peer competence and aggressive behavior. The subjects were 100 preschool children (49 girls and 51 boys; mean age, 70.30 months), their mothers and teachers, recruited from five daycare centers located in Gyeonggi-do area. Each child's language ability was assessed individually with the standardized measure, the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and their teachers reported on the children's peer competence and aggressive behavior. Their mothers also reported on parenting behavior and their child's emotion regulation by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reschool children's peer competence was positively related to maternal warmth and children's language ability. Their aggressive behavior was positively related to harsh maternal parenting but negatively related to emotion regulation. Seco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children's language ability and maternal warmth predicted peer competence. Third, children's gender, emotion regulation, and harsh maternal parenting predicted aggressive behavior. These findings could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programs and services to promote peer competence in preschool children.

▲주제어(Key Words) : 언어능력(language ability),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또래유능성(peer competence), 또래공격행동(aggressive behavior)

I. 서론

사회성 발달 연구자들은 아동발달의 맥락으로써 또래 관계에 관심을 가져왔다. 아동에게 중요한 대상으로 부모와 또래의 역할을 구분해 제시한 W. Furman and E. A. Wehner(1994)에 따르면, 부모와의 관계는 자애로움과 애

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면 또래와의 관계에서 아동은 친밀감, 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우정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게 된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주는 성인인 부모와의 관계와 달리 또래와의 관계는 동등하면서도 수평적인 관계이므로 아동은 또래관계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다. 유아가 어린이집이

* Corresponding Author : Insuk Choi,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onam University, 417, Eodeung-daero, Gwangsan-gu, Gwangju 506-714, Korea, Tel: +82-62-940-5278, E-mail: aneschoi@honam.ac.kr

나 유아교육기관에 가게 되면서 또래와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또래와 함께 하는 놀이는 확장되고 정교해진다. 또래와의 놀이를 포함하여 또래와 하는 상호작용은 유아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중요한 맥락이다(T. M. Gallagher, 1993). 발달적 관점에서 아동은 또래관계를 통해 평등, 상호간의 친절과 호의라는 개념을 발달시키고 갈등해결, 공격성을 통제하는 방법을 훈련할 수 있다(W. Hartup & B. Laursen, 1994). 또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는 타인과 구분되는 자아에 대한 개념을 습득하게 되며, 또래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M. J. Guralnick, 1993; K. J. Topping & S. Ehly, 1998). 이처럼 또래관계는 사회인지 기술의 습득과 함께 또래와의 협력, 상호간의 지지 등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E. P. Fisher, 1992). 유아기의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건강한 적응의 지표이며(D. Cicchetti, 1990, pp. 2-28), 이후에 초등학교 시기의 학업적응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 W. Ladd, J. M. Price, & C. H. Hart, 1988). 반면에 유아기의 부정적인 또래관계는 청소년기나 성인기의 문제행동, 사회부적응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유아기 또래관계의 발달궤적을 고찰한 종단연구에 따르면 유아기의 부정적인 또래관계가 아동·청소년 시기의 사회부적응, 비행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 A. Denham & R. W. Holt, 1993; M. E. De Rosier, J. B. Kupersmidt, & C. J. Patterson, 1994). 유아기의 또래관계가 장기적으로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유아가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인 또래유능성과 또래관계에서의 부적응 행동인 또래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또래적응 또는 또래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유아 개인요인으로는 유아의 언어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어는 필수적인 의사소통 도구이며 아동의 정서 발달과 학업 적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N. J. Cohen, 2005). 완전한 문장을 구사하는 의사소통 발달 수준에 이르는 만 5세의 유아는 또래와의 놀이가 정교화 되면서 언어가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유아는 성공적으로 언어발달을 이루어가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언어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된다(J. Beitchman, 2005). 선행연구(T. M. Gallagher, 1999)에 따르면 언어기술은 효과적인 자기조절 전략을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사회적 규칙을 이해하고 조직하며 실행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또래와 상호작용할 때 아동은 언어를 통해 상대에게 질문을 하고 경청하며,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거나 동일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예를 들어 아동이 난처한 상황에 있는 또래를 놀리기 보다는 공감하거나 동정을 표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어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능력은 유아가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 나가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래와 함께 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유능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 준다(B. L. Gertner, M. L. Rice, & P. A. Hadley, 1994). 유아의 언어능력과 또래관계의 관련성을 살펴본 국내 연구에서 유아의 언어능력과 또래인기도(H. Go, 2009), 언어능력과 또래상호작용(K. Y. Kim & S. E. Lee, 2007)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는데, 직접적으로 유아의 언어능력이 또래유능성이나 또래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유아의 또래유능성이나 또래공격성은 또래의 행동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정서조절능력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정서조절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아의 정서적 능력 가운데 하나이다. 유아는 또래와 상호작용할 때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표출하게 되는데 특히 슬픔이나 분노 등 부정적인 정서의 표출은 또래 사이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상대에 대한 분노를 그대로 표출했을 경우에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I. Choi & K. Lee, 2010). 그러나 아동이 분노를 강하게 느끼는 경우라도 반드시 공격행동으로 이어지는 않으며, 사회적 맥락에 맞도록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에 따라 상대에 대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정서조절능력이 있는 아동은 갈등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려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며 이것은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상호작용보다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N. Eisenberg & R. A. Fabes, 1992). 이처럼 정서조절능력은 아동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정서적 각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의 토대가 된다(C. Saarni, 1999).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유능성을 살펴본 선행연구(J. H. Lee & H. J. Moon, 2010)에 따르면 정서조절능력이 클수록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유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의 관계를 고찰한 선행연구(N. Eisenberg & R. A. Fabes, 1992; Y. J. Han, 2006)는 정서조절이 아동의 공격성 및 행동문제를 예측한다고 보고했는데, 정서 표현을 조절할 수 있는 아동은 사회적으로 적절한 정서를 표출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개인적 특성인 언어능력이나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또래와의 적응이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으나 개별 변인이 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그쳐 이러한 변인들이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또래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상대적인 영향력을 고찰하지는 못하고 있다. 유아의 주요한 개인 특성이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또래에 대한 공격행동의 표출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취약한 아동을 확인하고 개입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K. Y. Kim & S. E. Lee, 2007; C. Leaper, K. J. Anderson, & P. Sanders, 1998; A. Sheldon, 1990)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고하였고, 언어발달 및 정서발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아의 성별요인을 통제하고 유아의 개인적 특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동의 발달에서 중요한 환경 가운데 하나인 부모는 유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환경요인이다. 발달초기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과 사회화 과정에 주목하면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부모 양육행동과 유아기 자녀의 또래관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유아의 또래 적응 또는 또래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으로는 주로 주양육자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들 수 있다. 유아에게 가장 의미 있는 대상인 부모와의 관계는 제 삼자인 타인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애착이론(J. Bowlby, 1978)에 따르면 영아는 탄생과 함께 주양육자, 주로 어머니와 강한 정서적 유대감인 애착을 형성하게 되며, 부모가 제공한 양육의 경험과 정서적 지지를 토대로 자아와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 내적작동 모델을 발달시키고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양육행동은 가족이외의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유아가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발달초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이후에 자녀의 아동기 사회적 유능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 C. Pianta & K. L. Harbers, 1996; S. L. Toth & D. Cicchetti, 1996). 또한 어머니와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유능성(J. N. Chung & Y. Lee, 2006), 어머니-자녀의 상호작용과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Lee & Rah, 1999),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J. Lee

& S. Moon, 2011)의 관련성이 입증되었다. 다시 말해 어머니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거나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유능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부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또래관계와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M. J. Kim & H. S. Doh, 2001)에 따르면 부모가 신체적 처벌 및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아동의 공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공격성에 관한 선행연구(J. Y. Choi & M. A. Kim, 2010)에서는 부모가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유아의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조사 대상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유아기 자녀의 또래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처벌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부모의 양육과 자녀인 유아의 또래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또래관계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긍정적 또래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또래상호작용, 또래인기도 등 다양한 척도를 유능한 또래관계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정적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는 전반적인 유아의 공격성이나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전반적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또래상호작용, 또래인기도 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어 또래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또래관계 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인 또래유능성(J. H. Park & U. H. Lee, 2001), 그리고 또래를 대상으로 나타나는 공격행동인 또래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구체적 양육행동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온정적 양육행동과 처벌적 훈육행동으로 구분하여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또래공격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성별과 개인 특성인 언어능력 및 정서조절능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온정, 처벌적 훈육)이 또래유능성과 또래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준비기인 만 5세 유아의 또래관계의 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또래간 폭력, 학교폭력의 심각성으로 인해 인성교육과 사회성 발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예방적 관점에서 유아의 또래적응을 돕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교육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동시에 가정 내에서 양육자인 어머니의 역할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유아의 언어능력 및 정서조절능력, 어머니 양육행동(온정, 처벌적 훈육)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및 또래공격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유아의 성별, 언어능력 및 정서조절능력 과 어머니 양육행동(온정, 처벌적 훈육)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유아의 성별, 언어능력 및 정서조절능력 과 어머니 양육행동(온정, 처벌적 훈육)이 유아의 또래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N시, A시 소재 어린이집 5곳에 다니는 만 5세 유아와 유아의 어머니, 유아의 담임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 103명과 유아의 어머니 103명, 담임교사 6명, 전체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유아 가운데 연구기간에 결석으로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유아 1명을 제외하고 유아 총 102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였고, 유아의 어머니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어머니 질문지는 101부가 수거되었고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1부를 제외하고 총 100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유아 100명, 유아의 어머니 100명의 자료와 유아의 담임교사 6명이 유아 100명에 대하여 또래유능성 및 또래공격행동을 평정한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Table 1>과 같다. 전체 유아는 남아 51명, 여아 49명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유아의 평균 월령은 70.57개월이고 남아는 70.34개월, 여아는 70.81개월이었으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7.35세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또래유능성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Park and Rhee (2001)가 개발한 취학전 아동용 또래유능성 척도(Peer Competence Scale for Preschool Children)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 5개 문항씩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교성 영역은 또래집단에 잘 수용되고 또래와 쉽게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여러 아이들과 어울려 친하게 지낸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사회성 영역은 또래를 잘 도와주고 사이좋게 지내며 갈등이 생겨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어려움에 처한 다른 아이를 잘 도와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0)

Characteristics		n(%)	
Child	sex	boy	51(51.0)
		girl	49(49.0)
	Age(month)	M= 70.30 (SD=3.52)	
	Age(year)	M= 37.35(SD=4.37)	
Mother	Education	MS or less	3(3.1)
		HS or less	54(54.5)
		University or less	41(41.4)
		Graduate school	1(1.0)
		Monthly Income Level	Less than 2million won
		2 - 4million won	51(57.9)
		over 4million won	18(20.5)

주도성 영역은 또래집단에서 활동이나 놀이를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이끌며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아이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래유능성에 대한 평가는 담임교사가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순으로 평정되는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3개 하위 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각각 .86, .92, .82로 나타났고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93이었다.

2) 유아의 또래공격행동

유아의 또래공격행동은 N. R. Crick, J. F. Casas and M. Mosher(1997)가 개발한 교사용 유아의 사회적 행동 척도(Preschool Social Behavior Scale-Teacher Form)의 외현적 공격행동에 관한 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또래를 대상으로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신체적 공격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다른 아이를 발로 차거나 때린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유아의 담임교사가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순으로 평정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91이었다.

3) 유아의 언어능력

유아의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Y. Kim, T. Sung and Y. Lee(2003)가 개발한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의 표현언어 발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취학 전 아동, 2세에서 6세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표준화된 검사 도구로 조사자가 유아와의 일대일 면접을 통하여 표현언어능력을 검사하였다. 이다. 검사도구의 문항간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α 값이 .95로 나타났다. 이 도구는 표현언어를 측정하는 문항 4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인지능력과 관련되는 의미론적 언어능력, 음운 및 구문론적 언어능력, 화용론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대상 유아의 생활연령에 해당하는 연령단계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고, 각 단계에서 모두 '4'를 받는 연령단계를 기초선으로 하고 이후 단계로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4'가 두 개 이상 나타난 연령단계를 한계선으로 하고 점수를 산출한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획득점수를 기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초선 단계에 해당하는 점수에 최고한계선까지 아동이 추가로 얻은 점수를 더하여 총 획득점수를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언어능력과 다른 변인과의 관련성을 판단

하기 위하여 획득점수를 기초로 표현언어점수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4)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A. Shields and D. Cicchetti(1997)가 개발한 정서조절 체크리스트(The Emotion Regulation Checklist: ERC)를 토대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어머니가 평정하도록 하였다. ERC는 정서적 유연성 부족과 정서 불안, 부정적 정서의 비조절로 구성된 불안/부정성 영역의 15문항(예; 쉽게 화를 낸다)과 상황에 적절한 정서표시, 공감, 정서자각으로 구성된 정서조절 영역의 9문항(예; 원하는 것을 얻기위해 기다릴 수 있다)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순으로 평정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불안/부정성 영역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불안/부정성 영역과 정서조절 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각각 .79, .76,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84였다.

5) 어머니의 양육행동

(1) 어머니의 온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운데 온정적 양육행동은 R. P. Rhoner(1984)가 개발한 부모 수용-거부 질문지(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자기보고 형식으로 측정하였다. 부모행동의 온정 차원에서 한쪽 끝을 수용적 양육으로 다른 한쪽은 거부적 양육행동에 가까운 것을 의미하므로 온정적 양육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친밀감이나 애정을 나타내는 언어적 및 신체적 표현을 자주하며 자녀의 요구에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나는 우리 아이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로 평정되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90 이었다.

(2) 어머니의 처벌적 훈육

어머니의 처벌적 훈육행동은 C. A. Essau, S. Sasagawa and P. J. Frick(2006)이 개발한 알라바마 부모양육 질문지(The Alabama parenting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자기보고 형식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어머니의 처벌적 훈육에 관한 3문항을 사용하여 어머니가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나는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때린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순으로 평정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Cronbach's α 값이 .62 였다.

3. 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

본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2011년 4월 1주에 걸쳐 만 5세 유아 20명과 어머니 20명, 담임교사 1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의 문항을 어머니와 교사가 이해하기 쉽게 문구를 수정하고 아동학 전공자 3인의 검토를 거쳐 최종 질문지를 구성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5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가정통신문을 통해 동의를 받은 어머니와 유아의 담임교사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이후 수거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어머니의 자녀인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자와 훈련받은 조사자 1명이 기관 내의 분리된 공간에서 유아와의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유아의 언어능력 및 정서조절능력, 어머니 양육행동(온정, 처벌적 훈육)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및 또래 공격행동과의 관계

유아의 언어능력과 정서조절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온정, 처벌적 훈육)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및 또래공격행동의 전반적인 경향과 성별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조사대상 유아는 보통 수준의 또래유능성을 나타냈고 공격성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또래공격행동($t=3.57, p<.001$)과 어머니의 체벌($t=1.99, p<.05$)에서만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일수록 또래에 대한 공격행동을 여아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가 남아인 어머니가 여아의 어머니보다 상대적으로 자녀에 대한 체벌적 훈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언어능력과 정서조절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100)

Variables	M(SD)			t
	Total	Boys	Girls	
Peer competence	3.18(.51)	3.17(.53)	3.19(.50)	-.23
Aggressive behavior	1.41(.57)	1.61(.67)	1.22(.38)	3.57***
Language ability	40.75(8.28)	39.49(8.28)	41.96(8.72)	-1.50
Emotion regulation	3.77(.36)	3.74(.36)	3.79(.35)	-.82
Maternal warmth	3.03(.43)	3.01(.47)	3.05(.38)	-.48
Maternal harsh parenting	2.27(.65)	2.42(.57)	2.10(.70)	1.99*

* $p < .05$, ** $p < .01$

Table 3. Intercorrelation of Variables

(N=100)

Variables	1	2	3	4	5	6
1	1					
2	-.01	1				
3	.28**	-.02	1			
4	.19	-.29**	.14	1		
5	.25*	-.04	.11	.31**	1	
6	-.07	.34**	-.09	-.36***	-.34***	1

1. Competence, 2. Aggressive behavior, 3. Language ability, 4. Emotion regulation, 5. Maternal warmth, 6. Maternal harsh parenting
* $p < .05$, ** $p < .01$, *** $p < .001$

(온정, 처벌적 훈육)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및 또래공격행동 간에 관련이 있는지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유아의 또래유능성은 유아의 언어능력($r=.28, p<.01$), 어머니의 온정($r=.25, p<.05$)과 정적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언어 구사 능력이 좋을수록, 어머니의 온정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유능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유아의 또래공격행동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r=-.29, p<.01$)과는 부적으로 관련이 있었고, 어머니의 처벌적 훈육($r=.34, p<.01$)과는 정적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유아의 정서조절을 잘 할수록 또래공격행동을 덜 보였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처벌적 훈육을 많이 할수록 자녀인 유아는 또래공격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성별, 언어능력 및 정서조절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온정, 처벌적 훈육)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성별, 언어능력 및 정서조절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온정, 처벌적 훈육)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유아의 성별을 통제하고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1단계에서 유아의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 유아 개인 특성으로 언어능력 및 정서조절능력을 투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어머니의 온정과 처벌적 훈육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본 결과, 1.044~1.262로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회귀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유능성에 대한 설명력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F=3.08, df=99, p<.05$). 1단계에 투입한 성별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2단계에서 유아 개인의 특성인 언어 능력과 정서조절능력을 투입한 결과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대한 설명력은 10%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또래유능성에 대한 설명력은 4%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즉, 유아의 개인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보다 또래유능성에 대한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개인특성 가운데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언어능력($\beta=.27, p<.0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운데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beta=.21, p<.05$)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언어적 표현 능력이 좋을수록 또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유능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애정을 보이고 칭찬을 자주 하며 친밀감을 보일수록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유아의 성별, 언어능력 및 정서조절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온정, 처벌적 훈육)이 유아의 또래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성별, 언어능력 및 정서조절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온정, 처벌적 훈육)이 유아의 또래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본 결과, 1.049~1.262로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공격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1단계에서 유아의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 유아 개인 특성으로 언어능력 및 정서조절능력을 투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어머니의 온정과 처벌적 훈육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Peer Competence among Children (N=100)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Peer competence				
		B	β	R ²	ΔR^2	F
1	Gender(Girls=0)	-.02	-.02	.00		.05
2	Language ability	.02	.27**	.10	.10	3.72*
	Emotion regulation	.22	.15			
3	Maternal warmth	.25	.21*	.14	.04	3.08*
	Maternal harsh parenting	.05	.06			

* $p < .05$, ** $p < .01$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Aggressive Behavior among Children (N=100)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Aggressive behavior				
		B	β	R ²	ΔR^2	F
1	Gender(Girls=0)	.39	.34***	.12		13.03***
2	Language ability	.00	.07	.19	.07	7.56***
	Emotion regulation	-.44	-.27**			
3	Maternal warmth	.17	.12	.25	.06	6.19***
	Maternal harsh parenting	.23	.26*			

* $p < .05$, ** $p < .01$, *** $p < .001$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인을 모두 투입한 최종회귀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공격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25%로 나타났다($F=6.19$, $df=99$, $p<.001$). 1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2%였으며, 2단계에서 유아 개인 특성인 언어능력과 정서조절능력의 설명력은 7%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또래공격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6%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유아의 성별을 통제했을 때, 유아의 개인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보다 또래공격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근소하지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또래공격행동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은 성별($\beta=.34$, $p<.00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beta=-.27$, $p<.01$), 어머니의 처벌적 훈육($\beta=.26$, $p<.05$)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유아보다 또래공격행동을 많이 보이며, 유아가 정서조절을 잘 할수록 또래공격행동을 덜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운데 어머니가 자녀에게 처벌적 훈육을 많이 할수록 자녀가 또래에게 공격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성별, 언어능력 및 정서조절능력,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온정, 처벌적 훈육)이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또래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인 만 5세 유아는 전반적으로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서 보통 수준의 유능성을 나타냈고, 또래에 대한 공격행동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또래공격행동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또래에 대한 공격행동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에서 남아의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I. Choi & K. Lee, 2010; J. M. Ostrov & C. F. Keating, 2004).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운데 자녀에게 신체적으로 가하는 처벌적 훈육은 전반적으로 경미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의 어머니가 여아의 어머니보다 신체적으로 가하는 처벌적 훈육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딸보다 아들에게 신체적으로 처벌적 훈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A. Mahoney, W. O. Donnelly, Lewis, & T. C. Maynard, 2000).

둘째,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또래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유아 개인의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보다는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성별을 통제하고 구체적으로 또래유능성과 또래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먼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아 개인 특성 가운데 언어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운데 온정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가 언어적 표현 능력이 좋을수록 또래에 대한 긍정적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능력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언어능력과 또래인기도(H. Go, 2009), 유아의 언어능력과 또래상호작용(K. Y. Kim & S. E. Lee, 2007),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과 또래유능성(J. L. Mendez, J. W. Fantuzzo, & D. Cicchetti, 2002)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유아는 어린이집에서 놀이나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또래와 상호작용하게 된다. 또래와의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유아는 자신의 현재 기분이나 의견에 대해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고 다툼이나 협력 등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슬퍼하거나 다친 또래에게 적극적으로 위로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언어표현을 통한 친사회적 행

동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를 대상으로 하는 유능한 사회적 행동은 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이 갖추어져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유아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고 발달 수준에 맞는 의사소통 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온정도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애정표현을 자주 하며 자녀에게 칭찬을 잘 하고 자녀와 친밀감이 강할수록 자녀인 유아의 또래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또래관계를 주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자녀인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J. N. Chung & Y. Lee, 2006; J. Lee & S. Moon, 2011)와 맥락을 같이 한다. 어머니가 자녀와 긍정적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수록 이러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모델로 유아는 또래와 상호작용하고 친밀한 또래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제공한 양육의 경험과 정서적 지지를 토대로 자아와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 내적작동모델을 발달시키고 유지하게 된다는 애착이론(J. Bowlby, 1978)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유아기는 사회적 관계망이 넓지 않고 가족과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외부 환경이 된다. 또래유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아 개인의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대상인 어머니가 자녀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정을 기초로 한 자녀와의 상호작용 기술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유아의 또래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아의 성별, 어머니의 처벌적 훈육,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요인이 또래공격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인 경우에 또래공격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아일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N. R. Crick et al., 1997; J. M. Ostrov & C. F. Keating, 200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유아의 또래유능성에서의 성차나 성별이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에 또래에 대한 공격행동에서는 성차가 분명히 드러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경향은 발달적으로 유아기의 공격적 행동에서 남아의 공격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지만, 또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등 또래와의 사회적 유능성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S. Walker, 2005)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유아기부터 남아가 또래에 대한 공격행동을 여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

린이집에서 또래와의 갈등 해결을 위한 대처 방안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관에서 유아사회교육을 실시할 때 남아들이 선호하는 놀이 상황이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갈등 상황 등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여 공격적인 행동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아의 또래공격행동에 대한 성별의 영향력을 통제된 이후에 또래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어머니의 처벌적 훈육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아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고 부정적 정서를 잘 조절할수록 또래에 대한 공격행동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능력과 아동의 공격행동과의 관련성을 입증한 선행연구(I. Choi & K. Lee, 2010; Han, 2006; N. Eisenberg & R. A. Fabes, 1992)의 결과를 지지한다. 특히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는 자극을 유발한 대상에게 공격적 행동으로 반응할 가능성을 높인다(I. Choi & K. Lee, 2010).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보다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은 아동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서조절능력은 정서적 유능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공격행동 예방을 위한 정서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어서 유아의 또래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신체적으로 가하는 처벌적 훈육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인 어머니의 처벌적 훈육이 경미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처벌적 훈육이 또래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어머니가 자녀에게 신체적인 처벌을 이용하여 훈육을 자주 할수록 자녀인 유아의 또래를 대상으로 한 공격행동이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신체적 처벌이나 가혹한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행동 및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S. A. Denham, E. Workman, P. M. Cole, C. Weissbrod, K. T. Kendziora, & C. Zahn-Waxler, 2000; M. J. Kim & H. S. Doh, 2001)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는 신체적 처벌을 자녀인 유아의 학습하고 공격행동에 대한 부정적 강화로 이어져 또래에게 하는 행동으로 그대로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나 반성에 대한 기회 없이 어머니로부터 신체적인 처벌을 받는 유아는 또래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때 친사회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반응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기부터 나타나는 부모의 처벌적 훈육은 다른 위험요인과 결합하여 가정

내의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린 자녀의 훈육에 대한 부모교육을 기관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고질적인 신체적 처벌은 자녀가 성장한 후에도 의미 있는 대상에 대한 공격행동으로 고착될 수 있으므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체계적인 예방과 개입이 요구된다. 특히 남아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신체적으로 가하는 처벌적 훈육을 여아의 어머니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고려했을 때, 성차에 따른 공격행동의 분화가 단순히 유아 개인의 특성보다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비롯된 것인지 추후연구를 통해 고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또래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성별 및 개인특성,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또래유능성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또래공격행동 예방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의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지지자로서 부모의 역할 수행 훈련을 포함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구체적인 양육기술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먼저 조사대상 유아의 수에 한계가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추후연구에서 연령과 성별에서 조사대상의 규모를 확대하여 발달적으로 또래와의 사회적 행동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모 가운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아버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구체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REFERENCES

- Beitchman, J. (2005). Language development and its impact on children's psycho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Encyclopedia o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1-7. Retrieved from http://www.child-encyclopedia.com/documents/Beitchman-BrownlieANGxp_rev.pdf.
- Bowlby, J. (1978). Attachment theory and its therapeutic implications. *Adolescent Psychiatry*, 6, 5-33.
- Chang, L., Dodge, K. A., Schwartz, D., & McBride-Chang, C. (2003). Harsh parenting in relation to child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 598-606.
- Choi, I. & Lee, K. (2010). The effects of components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emotional factors on preschoolers'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6), 15-34.
- Choi, J. Y., Kim, M. A. (2010).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parenting attitude on child's aggressio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7(4), 119-137.
- Chung, J. N., Lee, Y. (2006).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and preschoolers' peer competence: mediating effects of preschoolers' internal representation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7(4), 65-80.
- Cicchetti, D. (1990). An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discipline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J. Rolf, A. Masten, D. Cicchetti, K. Nue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pp. 2-2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hen, N. J. 2005. "The Impact of Language Development on the Psycho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In R. E. Tremblay, R. G. Barr, & R. De. V. Peters (Eds.), *Encyclopedia o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online] (pp. 1-6). Montreal, Quebec: Centre of Excellence for Early Childhood Development. Retrieved from <http://www.childencyclopedia.com/documents/CohenANGxp.pdf>.
- Crick, N. R., Casas, J. F., & Mosher, M. (1997).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29, 271-275.
- Denham, S. A., & Holt, R. W. (1993). Preschoolers' likability as cause or consequence of their soci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9, 271.
- Denham, S. A., Workman, E., Cole, P. M., Weissbrod, C., Kendziora, K. T., & Zahn-Waxler, C. (2000). Prediction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from early to middle childhood: The role of parental socialization and emotional ex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 23-45.
- De Rosier, M. E., Kupersmidt, J. B., & Patterson, C. J. (1994). Children's academic and behavioral adjust-

- ment as a function of the chronicity and proximity of peer rejection. *Child Development*, 65, 1799-1813.
- Eisenberg, N. & Fabes, R. A. (1992).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 S. Clark (Ed.), *Emotion and social behavior: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4, pp. 119-150). Newbury Park, CA: Sage.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2227-2247.
- Essau, C. A., Sasagawa, S., & Frick, P. J. (2006).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Alabama parenting questionnair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5(5), 595-614.
- Fisher, E. P. (1992). The impact of play on development: A meta-analysis. *Play & Culture*, 5, 159-181.
- Furman, W., & Wehner, E. A. (1994). *Romantic views: Toward a theory of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Washington, DC: Sage Publications, Inc.
- Gallagher, T. M. (1993). Language skill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school-age children.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24, 199-205.
- Gallagher, T. M. (1999). Inter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language, behavior, and emotional problems. *Topics in language disorders*, 19(2), 1-15.
- Gertner, B. L., Rice, M. L., & Hadley, P. A. (1994). Influence of communicative competence on peer preferences in a preschool classroom.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7(4), 913-923.
- Go, H. (2009). A study of variations in popularity among pee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9(6), 21-43.
- Guralnick, M. J. (1993).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in th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of children's peer relations. *Topic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3, 344-371.
- Han, Y. J. (2006). Affective predictors of school-age children's aggression and peer relationships: Direct and indirect effec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5), 1-15.
- Hartup, W., & Laursen, B. (1994). Conflict and context in peer relations. In C. Hart (Ed.), *Children on playgrounds: Research perspectives and applications* (pp. 44-84). Ithaca: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Howes, C., Rubin, K. H., Ross, H. S., & French, D. C. (1988). Peer interaction of young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3, i-92.
- Kim, H. J. (1998). Relations among maternal cognition, maternal supervisory/monitoring behaviors,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9(1), 43-53.
- Kim, M. J. & Doh, H. S. (2001). The influence of parenting behaviors, marital conflict, and sibling relations on aggression in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2), 149-166.
- Kim, K. Y. & Lee, S. E. (2007).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and peer interaction according to language abilitie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4(1), 167-197.
- Kim, Y., Sung, T., & Lee, Y. (2003). *The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 Seoul: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 Ladd, G. W., Price, J. M., & Hart, C. H. (1988). Predicting preschoolers' peer status from their playgrou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59, 986-992.
- Leaper, C., Anderson, K. J., & Sanders, P. (1998). Moderators of gender effects on parents' talk to their children: a meta-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3-27.
- Lee, J. H. & Moon, H. J. (2010). Structural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preschool children's peer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3), 17-32.
- Lee, J., & Moon, S. (2011).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young children's peer competence and its related variable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6(6), 249-269.
- Lee, Y. & Rah, Y. M. (1999). The relation of attachment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to peer interaction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3), 19-32.
- Mahoney, A., Donnelly, W. O., Lewis, T., & Maynard, C. (2000). Mother and father self-reports of corporal punishment and severe physical aggression toward clinic-referred youth.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 266-281.

- Mendez, J. L., Fantuzzo, J. W., & Cicchetti, D. (2002). Profiles of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African America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73*, 1085-1100.
- Ostrov, J. M., & Keating, C. F. (2004). Gender differences in preschool aggression during free play and structured interactions: An observatio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3*, 255-277.
- Park, J. H., & Rhee, U. H. (2001). Development of a Peer Competence Scale for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1), 221-232.
- Pianta, R. C., & Harbers, K. L. (1996). Observing mother and child behavior in a problem-solving situation at school entry: Relations with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4*(3), 307-322.
- Rohner, R. P. (1984).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Rev. ed.). Storrs: Center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Saarni, C. (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Y: Guilford.
- Sheldon, A. (1990). Pickle fights: Gendered talk in preschool disputes. *Discourse Processes, 13*(1), 5-31.
- Shields, A., & Cicchetti, D. (1997). Emotion regul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Child Development, 33*, 906-916.
- Topping, K. J., & Ehly, S. (Eds.) (1998). *Peer-assisted learning*. Mahwah, NJ, London: Lawrence Erlbaum.
- Toth, S. L., & Cicchetti, D. (1996). Patterns of relatedness,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perceived competence in maltreat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1), 32.
- Walker, S. (2005).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peer-related social competenc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ory of mind.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6*(3), 297-312.

접수일 : 2014년 07월 15일

심사일 : 2014년 08월 01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0월 03일